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7

주 제:	“나눔의 기적.”	“연중 제 17 주일 ”	2009년 7월 26일
복음 묵상:	[요한 6,1-15]	[2 열왕 4,42-44]	[에페 4,1-6]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 많은 군중을 먹이신 것은 분명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또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하고도 놀라운 기적은 그냥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갖고 있다가 그것을 내어놓는 것에서 나눔의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어린이가 내놓은 것은 많은 군중이 먹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자, 예수님께서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어 그 많은 군중이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적은 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가르치시려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하여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봉헌하라고 초대합니다. 오 천 명이 넘는 군중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지만 제자들의 공동체에겐 전부였던 그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촉매역할을 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봉헌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산 박성태 신부님 강론중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축 환영
조 병화 솔로몬 형제님, 오랫동안 정리차 한국에서 지내시고 영구 귀국하여 성가대로 복귀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축복이 듬뿍 내리시길 기도합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지속적인 어렵고 힘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혼자서 힘든 투쟁을 하는 자매님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훈 베드로 형제님. 부친이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시요.
- 신제완 대건 안드레아 베이스장 부모님 방문 관제로 두주일 나오지 못합니다. 즐거운 시간되십시오.

본당 조셉 학사님 부제 서품

- 9월 20일 본당에서 맥그리 주교님 집전으로 학사님 부제 서품식에 따른 성가연습 예정.
- 학사님을 위하여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톨릭 교회의 4 가지 특징

1. **하나인 교회:** 오직 한분이신 하느님을 모심. 하나의 신앙을 고백.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한 분이신 성령에 의해 생명을 얻음. 전체에 있어서도 교황님을 중심으로 교계제도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음.
2. **거룩한 교회:** 교회의 거룩함. 거룩함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살아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다는 뜻. 신자들은 은총에 의해 성화 되고 거룩해 짐
3. **보편적인 교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 하느님의 구원 의지에 따라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은총으로 이끔.
4.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 복음 [요한 6,1-15]



그때에 1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2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3 예수님께서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4 마침 유대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5 예수님께서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6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7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이백 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8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9 “여기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
 11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12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13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 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
 14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15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1분 명상

♡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 ♡

- 테레사 드 제수스,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에서 -



지저분하고, 못 먹고, 눈물 흘리는
 어린 아이를 볼 때
 나는 화가 납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을 볼 때
 가난한 사람이 그 음식을 골라 집어먹을 때
 나는 화가 납니다.

작고 나이 든 사내가
 종착역에서 잠든 것을 볼 때
 나는 화가 납니다.

스물여섯 살 젊은이가
 노인처럼 구부정한 몸에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을 때
 나는 화가 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세상의 장면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따뜻한
 눈길이겠지요,
 주위를 둘러보면 내가 무심히 지나쳤던
 이웃의 아픔들이 보입니다,

서로 나누고 함께 하는 마음이 소중한 때입니다,

